

건학 100년 동국대 이대로 안된다

내년 2006년 5월 8일로 동국대는 건학 100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100주년을 1년 앞둔 지금 동국대는 혼란에 휩싸여 있다. 학교운영의 핵심인 재단 내부 고발사태로 불거진 각종 비리의혹은 100년 시작이라는 전통을 무색하게 만들면서 학교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입혔다. 또 각종 대학평가는 바닥을 헤매고 있고, 100주년 기념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교대학은 종합학교 이미지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총장과 교수회 등 구성원들의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다.

“더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위기를 기회로”

1. 어찌다 여기까지 왔나
2. 불교대학 '개혁' 만이 살길이다.
3. 재단에 대학발전 기대할 수 있나?
4. 100년 동국대 비전은 어디에?

■ 동국대의 현주소
 동국대가 학교의 재정과 교육여건 등을 종합 분석해 지난 2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항목에서 경쟁 대학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교수확보율은 교육부 기준의 45.8%에 그쳤으며, 서울캠퍼스의 교직원 면적도 교육부 기준의 4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운영 외에 필요한 교원확보, 연구지원, 교직원과 학생 복지 등에 소요되는 자금인 적립금 현황은 2003년 결산을 기준으로 이화여대가 4517억원, 연세대가 1527억원, 경희대가 1485억원 등인데 비해 동국대는 209억원으로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은 각종 교육지표를 높이기 위해 재단과 동문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대학 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학교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대학당국이 말하는 발전 방안
 대학당국은 지난 2월 교육시스템 선진화, 인프라 및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특성화 집중육성, 연구성과 향상 등의 '동국 100년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 2010년 10대 명문 사학, 2014년 3대 명문,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교육부문 강화를 위해 4월 4일 교무위원회는 교수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년교수들의 연구·교육 업적을 평가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일부 교수들이 익숙하지 않는 제도 도입에 거부감이 있는 것

는 진단을 받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병원평가에서도 경주부속병원은 78개 대형병원 가운데 77위 등급을 받았다.

홍 총장은 "필동병원 매입 등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300억 넘는 재원이 한꺼번에 투입되면서 교육관련 투자를 못했던 탓으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학교육협의회 이현정 사무총장은 "요즘 같은 대학간 무한 경쟁시대에 한번 추락한 등수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총장의 개인적 자질에 대한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02년 말 재단 이사회의 총장 선출 과정에서 자격시비로 인한 잡음이 적지 않았던 데다, 2004년 8월 종합대학의 수장인 총장과 이사장이 비리의혹으로 고발당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검찰 수사로



조계종림 동국대학교가 건학 100년을 계기로 제2의 도약을 하려면 구성원의 화합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동국대 '발전도상' 앞에서 법회를 봉행하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일의 EMR(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설과 장비 면에서 최고수준이다. 게다가 분야별 최고 명인들이 포진해 있음을 강조했다.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전국 병원과 경쟁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도 있다. 우선 개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장 큰 부담이다. 110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개원 자금을 대부분 차입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기간 내 흑자를 내지 못하면 자칫 대학과 병원이 공멸할 수도 있다. GS건설(옛 LG건설)과 소송중인 공사비 잔금 문제로 걸림돌이다. GS건설은 지난해 4월 동국대 재단을 상대로 230억원 가압류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 개교 100주년 준비 얼마나?

내년에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는 2002년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본부장 이관제, 이하 기념사업회)'를 발족시켜 준비해 왔다. 하지만 100주년을 1년 남긴 지금, 동국대는 '축제'를 앞둔 학교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 침체된 분위기다. 100주년이라는 도약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동국대가 계획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념사업에는 △비전(Vision) 선포식(2005. 9) △일류동국 도약기원 봉축연등 점등식(2006. 5)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국제학술회 3건(2006. 5) △<우리말

불교개념사전>의 출판사업 5건(2006. 9) △일산불교병원 개원 및 100주년기념관 건립(착공) 등이 있다.

기념사업회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업의 중량감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 중론이다. 100주년을 맞아 올해 5월 '세계대학총장 포럼(세계 24개국 94명과 국내 104명의 총장 참석)', '노벨상 수상자(10명) 강의시리즈' 등을 개최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고려대와 비교해볼 때 동국대 기념사업에는 그다지 눈에 띄는 것이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100주년기념관 건립사업이다. 기념사업회는 100주년에 즈음해 서울과 경주에 기념관을 착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아 착공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고려대는 물론 동국대와 같이 2006년 100주년을 맞는 숙명여대가 100주년 기념관을 이미 완공한 것과 대조적이다.

동국대 기념사업이 안고 있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점은 100주년을 학교구성원의 화합과 발전의 계기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동국대 한 교수는 "기념사업회가 공개하지 않아 사업 진행 추이를 전혀 알 수 없다"며 "다른 교수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강지연·조용수·박익순 기자

인터뷰

홍기삼 총장

“사리사욕 버리고 학교 미래 생각해야”



홍기삼 총장은 말을 아꼈다. "구성원 모두가 사적인 욕심을 끊고 학교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정작 학교가 혼란에 휩싸인 원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홍 총장은 "건축과 경영효율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총장으로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교수 직원 사회에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교육, 연구, 행정 업적을 배가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 안팎의 혼란과는 상관없이 학교의 기본을 다잡아가겠다는 것이다.

.....

염준근 교수회장

“재단-학교-교수회-학생 화합에 미래 달렸다”



"동국대 위기의 본질은 재단·학교당국·교수회·학생이 화합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동국대 교수회장 염준근 교수(동국대 통계학과)는 동국대 추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구성원 상호간의 불신과 반목이라며 신뢰회복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특히 제도개정 과정에서 학교 측이 보인 자세에 대해 비판했다. 염 교수는 "재정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홍기삼 총장으로서는 교수들을 강제하는 것만이 학교평가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을 것"이라며, "이는 홍 총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국 대학 평가 37위... 경주병원 최하위권

이사회 화합·실질적 재원조달 계획 시급

일산병원 개원·100주년 사업 등 발전 계기돼야

으로 안다"며 "하지만 실제 도입되면 오히려 교수들의 수당과 연구비가 더 늘어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수회는 "대학당국이 말하는 발전방안은 구체적인 재정조달 계획도 없는 허방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하고 "재단과 학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만 쥐어짜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총장의 대학 경영 문제없나?

홍기삼 총장은 취임 후 틈만 나면 변화와 개혁을 외쳤지만 구성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실제로 취임 3년차에 접어든 홍 총장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에서 동국대는 37위로 평가 받았다. 등수를 매기지 않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종합평가에서는 평가 대상 학과 대부분이 '개선요망 수준'이라

출국금지까지 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이에 따라 총장의 대학경영과 외부활동이 제약되면서 외부 발전기금은 바닥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대학보직을 맡았던 한 교수는 "총장의 취임 첫 해는 직원사회를 양분하는 이른바 '코트인사' 탓에 대학이 제대로 일을 할 형편이 못되었다"는 한 마디로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 일산불교병원 개원 어떻게?

이러한 혼란 속에서 3년여 동안 개원을 미뤄왔던 일산불교병원은 5월말 (가)개원을 목표로 개원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산불교병원 이석현 원장은 "시설·장비·인력의 경쟁력 면에서 타 병원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있다"며 성공적 개원을 자신하고 있다. 일산불교병원은 인 근에서 최근에 지어진 새 건물로, 국내 유

2005 울진 세계 친환경 농업엑스포 성공기원

불기 2549년 천태연합 봉축 법요식 및 예술제



지난해 봉행한 2004 울진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 성공기원 천태연합 봉축 법요식

울진지역 천태사암연합회가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2005 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성공기원 천태연합 봉축 법요식 및 예술제를 본종단 전운덕 총무원장 스님과 종단 대덕스님, 여러 내빈들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불자님께서는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울진군민의 엑스포 성공기원 의식고취와 울진군 천태종 7개 사찰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울진 천태인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장소 : 울진 청소년 수련관
 - 일시 : 불기 2549년 5월 11일
 - 1) 1부 : 예술제(17:00~18:20)
 육법공양 시연. 찬불가가수 머루와다래. 이상강독주. 거문고독주. 사물놀이공연. 합창단 찬불가 등
 - 2) 2부 : 봉축법요식(18:20~19:00)
 - 3) 3부 : 제등행렬(19:00~)

천태 울진 사암연합회 TEL 054)783-3035 / FAX 054)782-4684